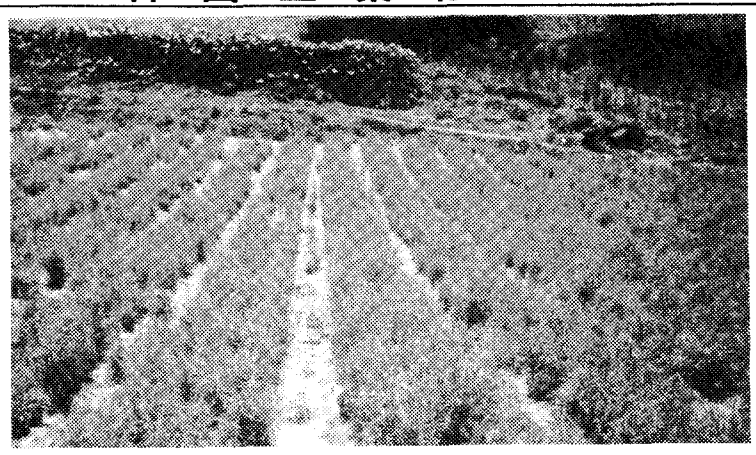
시호 지역별 파종적기 밝혀

작물시험장, 수량증대 큰 기대



◇농진청 작물시험장을 최근 시호의 지대·지역별 파종적기를 구명해 냈다.

시호에 대한 지대 및 지역별 파종적기가 밝혀져 수량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지난 3년간 시행된 산하 8개 기관의 시험성적을 종합해 <재래시호>와 <삼도시호>의 지대 및 지역차이에 따른 파종적기를 구명해 냈다.

작물시험장에 따르면 시호는 중북부지대의 경우 3월 중·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4월 중·하순에 파종하는 것보다 수량성이 20% 가량 높고 중남부지대는 3월 중·하순이 4월 중·하순에 비해 40% 가까이 수량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남부지역은 3월 상순 파종이 3월 하순보다 수량성이 36%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물시험장은 지역별로는 강원평야지의 경우 <재래시호>는 3월 30일 파종이 10a(3백평)당 56·7kg을 수확, 4월 10일보다 10%가 증수되고 <삼도시호>는 3월 20일이 4월 10일보다 10a당 7·2kg 더 수확된 것으로 분석했다.

천궁제초

흑색비닐 멀칭으로 해결

손제초보다 12% 증수

천궁 재배때 제초작업은 흑색비닐멀칭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농촌진흥원은 피·여뀌등 천궁재배포장의 잡초 제거를 위해 흑색비닐멀칭, 토양처리제인 <쏘나란>유제 살포, 토양처리제 살포 뒤 백색비닐멀칭, <그라목손>액제 사용 등에 따른 잡초방제효과를 검토한 결과 완효성비료를 준뒤 흑색비닐멀칭한 것이 잡초 방제효과는 물론 수량도 손제초에 비해 12%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농진원의 조사결과 각 처리별 천궁출현율은 1백%로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잡초방제가는 흑색비닐피복과 토양처리제 살포뒤 백색비닐멀칭, 관행 손제초가 모두 1백%의 방제가를 나타낸 반면 토양처리제만 뿌린 경우는 9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0a(3백평)당 수량은 흑색비닐피복 3백83kg, 손제초 3백42kg, 토양처리제 살포뒤 백색비닐멀칭 3백35kg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재배정보

삽주 채종적기

11월25일~12월25일

약용식물인 삽주(백출)의 대량번식을 위한 씨 파종의 경우 11월 25일~12월 25일 사이에 채종하는 것이 발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농촌진흥원에 따르면 <영주지방종>을 대상으로 10월 하순부터 한달 간격으로 1월 하순까지 백출의 채종시기를 달리해 3월 하순 아주심어 재배한 결과 11월 25일 경에 채종한 것이 79%로 발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2월 25일 채종도 발아율이 71%로 높은 반면 10월 24일과 다음해 1월 25일 채종은 각각 57%와 61%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무엇이 든 물어 보세요

약용작물 건조시 요령은

향많은 생약재 25~30℃저온서 서서이

문 여러가지 약용작물을 약간씩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금년 수확한 생약재를 건조하여 저장하거나, 판매하려고 합니다. 생약재 건조와 저장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약초류를 건조하는 방법은 양건법, 음건법, 증건법, 화건법이 있습니다. 여타 작물과는 달리 약용작물은 종류의 다양성과 이용부위가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으로 작물에 따라 건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용작물을 건조할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조하지 않고 생으로 환부에 직접 사용하는 약초를 제외하고는 함유된 유효성분의 화학적 변질이 우려 되므로 반드시 건조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2)가급적 수확후 속히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시기가 늦으면 발효되거나 엽류의 경우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며 향이 많은 생약재는 향이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3)약초류의 작물 특성에 맞는 건조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향은 반드시 음건하여야 색택의 변화가 없으며 직사광선에 양건하면 약효가 떨어지며 변색이 됩니다.

4)수분이 많은 과실류는 신속히 건조시키되 온도는 가급적 40℃~60℃를 유지해야 하며 향이 많은 생약재는 저온인 25~30℃에서 서서히 건조시켜야 향기가 많은 고급품 생약재를 만들수 있습니다.

양건법: 대개 조직단단한 작약, 감초, 택사 같은 작물에 적합하며 꽃을 양건하면 변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음건법: 실내에서 온도와 통풍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엽류, 화류, 전초류에 적합하나 건조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보통 2~3시간 양건후 음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건법: 인공가온법으로 때나 장소에 구애없이 가능하나 작물의 특성에 맞게 건조기 온도를 조절하여야 고급 생약재를 만들수 있습니다.

건조된 생약재를 저장할때에는 저장 장소가 완전히 건조해야 하며 습기에 약한 생약재는 수분함량이 10%이하가 되게해야 한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고의 온도는 10℃이하가 되게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약용작물개발연구실>

치자 폭락, 고본 오름세

산지동향

치자 치자가 곤두박질 시세다. 말린것으로 산지에서 거래되는 6백g당 도매시세는 1천원도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도매시장에서 근당 1천2백원~1천3백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시세인 3천5백원 선에 비하면 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부터 과잉생산되기 시작한 치자가 재고량이 누적된데다 국내 수요량이 이를 따르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세 폭락으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고본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6백g당 2천5백원 선이던 고본 시세가 지금은 4천5백원 선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본은 정선군 임계면에서 매년 2만근 가량 생산되고 있으나 시세하락으로 올 생산량은 예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산지인의 분석이다.

건강 6백g당 3천6백~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산지인 충남 서산에서 생강값이 1kg당 4천원을 호가하는데 비하면 건강 시세는 수지가 안 맞는 경우.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강으로 출하하고 있어 건강 물동량은 거의 부진한 상황.

소황기·백하수오 큰 폭 하향세, 일천궁거래 다소 활발

백하수오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백하수오 6백g당 도매시세는 상품이 9천원 선, 중품은 7천원 선으로 지난달 시세 1만5천원(상품), 1만원(중품)선에 비해 큰 폭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 부터 개량종근이 도입 국내에 다수 보급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오미자 오미자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산이 6백g당 1만2천원 선에, 재배산이 6백g당 1만원 선에 각각 도매거래되고 있다. 전북 장수, 강원도 인제가 주산지인 오미자는 농촌 일손부족으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금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황기 1년근 황기 6백g 시세가 지난달 6천5백~7천원 선 보다 더 내린 5천~5천5백원, 6천원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3년근은 1만6천원 선. 5년근은 2만5천원 선으로 지난달과 큰 차이 없는 보합세 이루고 있다. 대구도매 시장에서는 중황기가 7천5백원선, 대황기가 2만6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일천궁 지난달 6백g당 2천1백~2천4백원 선으로 폭락 거래부진하던 일천궁 시세가 2천4백~2천6백원 선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산지인의 전언.

맥문동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맥문동 6백g당 도매시세는 거심이 1만1천원 선, 막맥이 9천원선에 산지 거래되고 있다. 내년 3~4월 햇것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